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마태 13, 27)

사진 : 김용배 일풍소(부산가톨릭사건가협회)

## 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열왕기 상권 3, 5~6ㄱ, 7~12

**화답송** 시편 119(118), 57과 72, 76~77, 127~128, 129~130 (© 97ㄱ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1. 주님은 저의 뉘시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 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2.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 됩니다. ◎
3.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4.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

**제2독서** 로마서 8, 28~30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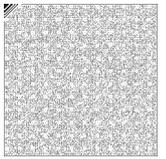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 13, 44~52

**영성체송** 시편 103(102),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 복음에서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은 깨달음을, 파는 것은 결단을, 사는 것은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은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발견하여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의 마지막에야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의해 깨달아지기보다는 어느 날 우연히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세속에 묻혀 살게 되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을 보낼 수 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참된 삶을 추구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참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실패와 좌절과 역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느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농부가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파는 단계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에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필리 3, 8)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요, 해방된 마음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에 얽매일 때 인간은 추

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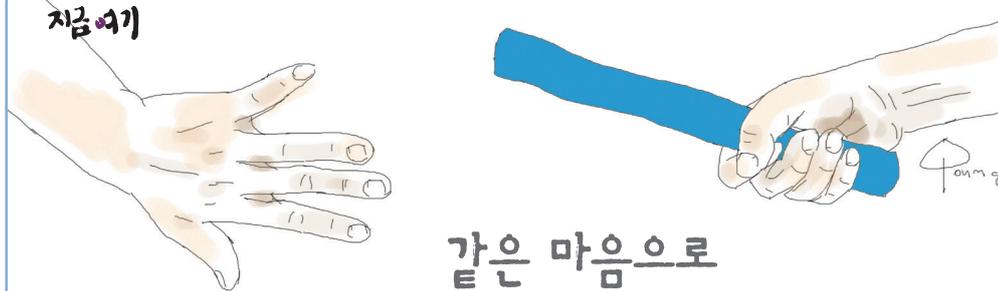
세 번째, 깨달음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칼로 잘라 버리듯이 세속적인 인연이나 미련, 애착을 끊어 버리고 밭을 사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이제 농부는 완전한 기쁨 속에 머무르게 되고 세상의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얻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랑의 신비이며 환희의 신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이 신비 속에 온전히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해방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수 락  
요한보스코 신부  
장림성당 주임

**지금 여기**



**같은 마음으로**

괜찮다는 말은 대체로 괜찮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곧 좋아질 거란 말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힘내란 말은 한 톨의 힘도 남아 있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저 역시 그런 위로에 의지해 힘겹고 외로운 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글·그림: 이영 아네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31(월)~8.1(화)  
이수락 신부(장림성당 주임)  
8.2(수)~5(토)  
서현진 신부(당감성당 부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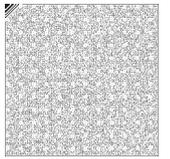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8.1(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청소년 봉사동아리 <하늘사다리>

**신부들의 수다**  
8.5(토) 13:00~14:00  
진행: 홍영택, 김병희, 김수환 신부  
★ 팟빵으로 (신부들의 수다) 구독 ★  
휴대전화에 (팟빵) 앱 설치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설치 가능)  
www.podbang.com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황 호 성 비오



본당에서 실시한 100주간 성경말씀일기를 시작할 때 사실 나는 '내가 과연 이 많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시작을 하더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 속에 가득했다. 실제로 나는 말씀일기를 쓰는 2년 동안 세상일에 바빠 일주일이나 열흘 치를 한꺼번에 읽고 쓰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보물찾기하듯 적당한 문장을 골라 일기장에 적는 날도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써 내려간 2년간의 말씀일기를 봉헌하면서 나는 나의 부끄러운 실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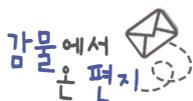
성경 통독의 끝 절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하루 일일십분의 작은 묵상이 언제나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며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일과를 끝내고 성경을 대할 때면 절벽처럼 막아서는 자책과 후회로 인해 성경 읽기 전 기도문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자비가 내 영혼을 에워싸는 듯한 거룩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조금씩 나의 삶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손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진리를 명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일기를 본당에 봉헌하던 날 "말씀일기를 통해 일상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셨을 것"이라는 주임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나의 감사 기도는 참으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다만 한 구절만 적으면 되었을 것이다. 반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속에서 이기적인 행동만 취하며 다른 이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죄도 통회하며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는 단 한 구절만 썼더라면 스스로에게 나는 꽤 정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고백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나는 이번 말씀일기 실천을 통해 내가 더 겸손해야 함을 깨달았으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이 매우 먼 길이고, 가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발까지 가는 것이 더욱더 먼 길임을 성찰할 수 있었다.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가르쳤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누어라. 서로 의심하지 마라. 서로 반목하지 마라.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내 귀에다 대고 발을 움직이라고 충고해 주셨는데도, 나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음을 다시금 반성했다. 이제야 나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듯 조금씩, 조금씩 나의 이웃을 둘러보며 걸어 가려 한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 안락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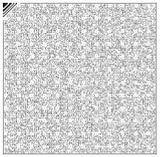


### 다르게 피정하기

“쓸데없는 책이나 지루하고 무용(無用)한 논의는 다만 종이와 먹만 허비할 뿐이고, 좋은 과일나무를 심고 좋은 채소를 가꾸어 생전의 살 도리나 넉넉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정약용 선생의 다산시문집 18권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문을 배우고, 지적인 작업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 여겨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껏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쩌면 그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돌아보자고 마련된 곳이 바로 감물생태학습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들여다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무한한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겨우 몇 가지 방식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느님 계시의 풍요로움에 우

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옛말에 '아흔아홉 가지 나물 노래를 부를 줄 알면 3년 가뭄도 이겨낸다' 라 했습니다. 내가 먹고 입에 맞는 것 너머에 얼마나 찬란한 미각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들판 구석구석 자라는 나물은, 모르는 이에게는 그냥 들에 난 풀이지만 아는 이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수성찬의 바다입니다. 소금에 절인 무장아찌와 배추장아찌가 김장으로 발전했다 합니다. 고작해야 소금에 절일 줄만 알고 그에 익숙하던 우리 민족이 늦게서야, 아주 늦게서야 조선시대에 중앙아메리카에서 나고 유럽을 걸쳐 16세기에야 아시아에 전해진 고추를 받아들이고선, 부패를 막고 짠맛을 줄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통배추김치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이, 어쩌면 그렇게 생태라는 주제로 신앙을 새롭게 보도록 초대하는 감물생태학습관의 비전은, 그래서 하느님 은총의 바다에 빛나는 여러 진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 김준한 신부(감물생태학습관 관장) jhkim7291@gmail.com



김종대 가롤로

계절은 하느님의 섭리를 배우기에 좋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여름다워야 하듯이 『부산가톨릭문학』도 그 뜨거운 열정을 닮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호(제35호)부터 제호 글씨체와 표지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책을 읽는 여유, 참 좋습니다. 새 글을 향한 창작 열기와 독서, 문학을 통해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로 시는 이영숙님의 ‘가족사진’ 외 2편, 안병근님의 ‘쪽쟁이 연가’ 외 2편, 수필은 김정연님의 ‘나의 마지막 반지’, 최동욱님의 ‘삶과 죽음’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호의 공모 작품과는 달리 수준이 향상된 느낌이라고 심사위원들은 말합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치유와 행복을 향한 끝없는 행진입니다. 자기중

심적인 사고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사유와 지혜의 글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부산가톨릭문학』 정기구독과 문학교실을 통한 창작 활동, 제7회 부산가톨릭문학캠프에서 한결음씩 나아 갑시다. 지나쳐온 문학에 대한 열정과 꿈을 키우고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과 문학 지망생들이 ‘더불어, 함께’ 하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부산가톨릭문학』 편집장



**신인문학상 작품 공모(수시 모집)** 보낼 곳 : gaserol@hanmail.net

가을호 접수 : 8.10(목)까지 겨울호 접수 : 10.31(화)까지

※ 자세한 요강은 문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litera.catb.kr>)

『부산가톨릭문학』 정기구독 문의 : 010-2831-3530(사무국장)

1년: 4회 4만원, 2년 : 8회 8만원, 3년 : 12회 10만원 (각 권 12,000원)

**제7회 부산가톨릭문학캠프**

일시. 8/12(토) 09:30~17:00

장소. 성분도 명상아카데미(오륜대)

강사 : 강은교 시인(교수), 김성종 소설가(추리문학관 관장)

참가비 : 2만원 / 문의 : 010-2831-3530(사무국장)

**제4기 부산가톨릭문학 창작교실**

기간. 9/6~11/22 매주 수요일 19:00~21:00(12주)

장소. 망미동 『부산가톨릭문학』 편집실

교육비 : 15만원(교재 포함)

문의 : 010-3845-8599(편집장)



세례받으신 지도 오래되었고, 성당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서 인격적인 성숙함이 부족해 보이는 분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82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삶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공간이 특정한 장소에만 한정될 수 없고, 신앙의 관계가 하느님과 나, 단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기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인간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리사에게 칼은 요리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강도에게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인격적인 성장이 함께하겠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무기로 다른 이를 낮추고 자신을 높여 하거나, 신앙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의 뜻은 언젠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해주시고, 변화할 기회를 사랑으로 살피주신다면 본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parvus@hanmail.net



교구 소식

## 레지오 마리아 학교, 제15기 졸업미사

지난 7월 23일(일) 푸른나무 교 육관에서 ‘제15기 레지오 마리아 학교 졸업미사’가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5

개월 간 레지오 실무와 영성교육에 수료한 285명의 레지오 단원들에게 졸업장이 수여되었고, ‘돌아보는 15기’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지오(지도 : 장재봉 신부, 단장 : 김정균 노엘) 주관

## 만덕성당, 친교의 날 행사



만덕성당(주임 : 김석중 신부, 회장 : 추승학 베드로)은 지난 7월 15일(토) 본당 강당에서 ‘친교의 날 치킨 프렌드십’이라는 이색 행사를 열었다. 이날 신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치킨과 맥주를 제공했다. 지역 복음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친교의 날 행사는 5년째 무더운 여름날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이기대성당, 본당의 날 행사

7월 16일(일) 솔피성지 / 주임 : 김승주 신부, 회장 : 조충래 안드레아

## 가톨릭센터, 홀몸노인을 위한 시원한 행복 나눔

가톨릭센터(관장 : 김현일 신부)는 홀몸 노인들의 건강과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7월 20일(목)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행복 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폭염에 취약한 부산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들에게 여름 이불, 쿨내의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 4,11지구 초등부 주일학교 음악캠프

7월 15일(토) 푸른나무 교육관



## 염포성당, 성경말씀 가훈 전시회

7월 16일(일) ~ 23일(일) / 주임 : 이차룡 신부, 회장 : 한기수 빅토리오

## 초장성당, 평화의 모후 Pr. 3,000차 주회



7월 18일(화) / 주임 : 이창신 신부, 단장 : 김말선 아녜스



## 중앙성당, 가두선교

7월 16일(일) 국제시장 일대 주임 : 이성균 신부 회장 : 김영준 요셉



8월의  
영화, 도서



아스팔트의 깨어진 틈새마다  
자라나는 들풀처럼  
그렇게 한 아이가 온다.

# 재꽃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는 하담(정하담)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겠다며 자신과 꼭 닮은 열한 살 소녀, 해별(장해금)이 찾아온다. 고요했던 마을은 해별의 등장과 함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게 되는데...

-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
- ▶ 관람료 : 주보 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 교 구

### 제4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9~11.16 매주 목 10:00~15:00 (총 5주 과정) · 교구청 5층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종교 무관)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 제9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21~11.18 매주 토 15:00~21:00(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사녀회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종교 무관)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7.31(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 514-6988

###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7.31(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울산 : 8.1(화) 11:00 아음성당  
문의 : 782-0765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미사

· 8.1(화) 11:00 · 중앙성당 / 대상 : 전신자  
주례 : 주영돈 신부 / 문의 : 466-2290

### 울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및 월미사

· 8.2(수) 14:00 · 복산성당 소성전  
지도사제 : 이주홍 신부 / 문의 : (052)201-6509

###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7.31(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서정혁 신부(청주교구)

### 첫 금 철야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철야 : 8.4(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이상욱 형제(서울대교구)  
신심 : 8.5(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사전접수)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부산교구 하늘공원**  
공원묘지

† 미사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층 경당

† 서벌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 뜨겁고 시원한 신앙

▶ 배광하 지음 ▶ 바로로말 ▶ 11,000원

사목하면서 느낀 삶에 대한 소중함, 열정적인 헌신, 이웃에 대한 고마움, 가족 이야기 특히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하느님 체험 등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 체험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어 재미와 감동을 줍니다.



## 하늘의 지혜

▶ 모리스 질베 지음 ▶ 안소근 옮김 ▶ 성서와함께 ▶ 20,000원

딱딱한 시대와 삶의 한복판을 뚫고 갈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여름의 쉼터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노라면, 문득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씻기는 한 줄기 바람을 느낄 것입니다.



## 위기를 극복하려면

▶ 마르틴 헤히트 지음 ▶ 황미하 옮김 ▶ 성바로출판사 ▶ 13,000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각자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p><b>(주) 씨피여행사</b> 1.8/15 스페인일주 루르드, 파티마 14일 2.9/10 동유럽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3.9/18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1일 380만원 4.10/2 연휴 로마, 루르드, 파티마 13일 부산 출발 247-5858, 010-3837-6434</p>	<p><b>바른성모안과</b>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르(한국망막학회 정회원) <b>242-0075</b>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b>인성심리상담센터</b>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b>612-5611</b> insungtherapy.modoo.at 남천동 부산은행(광남지점) 3층</p>	<p><b>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b> 센텀시티역 11, 13번 출구 임페리얼타워 15층 <b>754-9975</b></p>	<p><b>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b>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b>242-4222, 1522-4324</b> <b>www.ss0924.com</b></p>
<p><b>honre청</b>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경,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b>807-2025</b> <a href="http://www.honre.com">http://www.honre.com</a> (총렬사 입구)</p>	<p><b>미래고속관광</b>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 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임 애 경(젼마) <b>055-333-6300, 010-9809-6300</b></p>	<p><b>법무법인 올강</b>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제자요한) <b>717-2570, 010-7455-1031</b></p>	<p><b>거 제 주 단</b>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점포: <b>632-0696</b>, 집: <b>416-9168</b> 휴대폰: <b>010-9331-6633</b>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로만 안쪽 화장실 옆</p>	<p><b>이상열</b>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 어깨통증(오십견), 손 · 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 <b>516-0888</b></p>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첫금, 토, 신심미사)  
· 8.4(금) 22:30~다음날 04:00  
- 젊은이 성령기도회  
· 7.31(월) 19:30 전포성당  
· 8.2(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후원회 월미사 (버스안내카드 참조)  
· 7.31(월) 11:00 / 점심 제공  
- 수요치유기도회 (버스안내카드 참조)  
· 8.2(수) 11:00~16:00 / 점심 제공  
- 교구 성령목상회  
제430차 : 8.4(금) 10:30~6(일) 17:30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제431차 : 8.11(금) 19:00~13(일) 17:30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회비 : 10만원, 교재비 5천원  
(회비를 미리 입금하셔야 정식 접수됩니다)  
농협 355-0003-3053-83 영성의집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8.3(목) 휴회  
- 100단 목주기도(미사, 안수, 점심제공)  
· 8.21(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8.8(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 010-2428-5785

**부산성모병원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지하 1층 신라명과, 전용면적 : 42㎡(상호 변경가능)  
계약기간 : 협의 / 임대조건 : 보증금 2억 월세 50만원(입찰 최저가)- 부가세 별도  
입찰자격 : 빵집임대 우선, 입찰자가 직접 경영, 전전임대 불가 / 문의 : 933-7033(총무팀)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겨울방학 사이판 영어캠프 모집**

· 2018.1.13(토)~2.11(일), 4주  
대상 : 초5~중3  
수업 : 주교좌 성당 부속 <마운트 카르멜 스쿨>  
숙식 : 사이판 한인성당  
문의 및 신청 : <http://saipan.catb.kr>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영성심리상담사]  
교육 : 9.4(월)~12.18(월) 월, 화, 목 10:00~13:00  
수강료 : 45만원, 총 6과목(과목당 10만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평생교육]  
노인을 위한 몸 마음 튼튼 건강교실, 부모와 전문가를 위한 언어발달 아카데미, 학령기 언어발달의 이해 [그리스도교와 인문학] 라틴어 중급(Lectio Progressa), 어르신들을 위한<천주교 요리 문답> 풀이, 이콘 그리기(기초반), 책과 영화를 통해 나와 당신 들여다보기, 화가가 만난 하느님  
접수 : 8.1(화)~31(목)  
개강 : 9.4(월)부터 과정보 별 해당요일  
문의 : 510-0951~3, edu.cup.ac.kr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8.4(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성심의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8.4(금) 14:00~17:00(미사 16:00)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주제 : 예수님과 성서 / 주례 : 김대선 신부  
· 성분도 은혜의집 / 문의 : (02)379-8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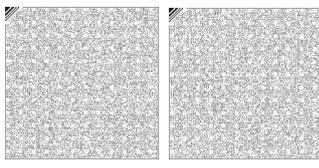
**롯데 함께하는 침묵피정**

· 8.11(금)~13(일) / 대상 : 40세 미만 미혼 여성  
· 한국의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문의 : 010-9319-1690(루카 수녀)

**성바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독서치료))**

· 9월부터 매주 목요일(10주간)  
오전반 : 10:00~12:00 저녁반 : 19:00~21:30  
· 가톨릭센터 1층 성바로 서원 / 참가비 : 12만원  
대상 : 30대~50대 남녀 / 문의 : 521-8898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8.6(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스승예수제의자수녀회	8.6(일) 14:00	부산 본원	010-6271-4110
한국의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3777-4688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울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기도 맞들이기**

· 8.4(금) 19:30~5(토) 아침미사 · 수녀원  
대상 : 35세이하 미혼여성 / 문의 : 010-8551-3312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기사 구함**

마감 : 8.2(수) / 문의 : 464-3137  
홈페이지(<http://jungbok.or.kr>) 참고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성소자 모집**

대상 : 자비의 가족이 되고 싶은 분  
문의 : (062)369-0295, 010-9310-0295  
홈페이지 : [www.mercedarias.kr](http://www.mercedarias.kr)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8.4(금) 18:00~6(일) 15:00 / 무료 숙식  
문의(010-3798-5418) : 부산역(10:10)-서면우체국 12번 출구(10:20)-시청 건너 4번 출구(10:25) 동래 전철 3번 출구(10:50)-김해시청 건너(11:10)

**성모승천대축일 성 예술 전례피정 soul stay**

· 8.13(일) 16:00~15(화) 13:30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 참가비 : 15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54)971-0722, 010-9877-4739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9.1(금)~14(목) · 독일 수도원 기행, 오스트리아 성모성지, 이태리 일주 순례 / 415만원 4석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대구가톨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모집 : 수시 2,597명,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61명  
원서 접수 : 9.11(월)~15(금) / 문의 : (053)850-2580

**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21세기 복지사회 구현의 중심인  
**사회복지학과**  
[www.cup.ac.kr](http://www.cup.ac.kr)

**부산 최대규모 인공신장실 확장**  
▶ 신장내과 전문의 직접 진료  
▶ 동정맥루 혈관 문제시 당일 검사 및 중재술  
▶ 71개 병상의 더욱 쾌적한 환경  
▶ 투석 중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가능  
**문의 : 461-2307, 2308**  
**메리놀병원** (메리놀병원 인공신장실)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가톨릭센터 미술발갤러리** **무료 대관 신청 안내**  
대상 : 작가 지망생, 아마추어 시각예술 단체 및 개인  
장소 : 마음발갤러리 / 기간 : 수시  
일상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께 전시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http://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강원도 덕양에서 해풍으로 말린  
**코다리찜 개시**  
코다리찜, 묵샐러드, 묵채  
1인분 11,000원(2인 이상)  
\* 묵 요리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치원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베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쎬리즈, QM쎬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내일성형외과**  
최수종(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윗입술,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서구 부곡대로9(베르병원 2층) / 서구청 옆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공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숙 현 (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분 우대**  
김 중 권(토마스), 김 태 순(안젤라)  
**752-6516, 010-7597-9264**